인문연구 제90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0, No. 1, pp.219~248
http://dx.doi.org/10.21211/JHUM.90.8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농촌사회 유입과 적응: 경북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정용교*

<목 차>

1. 머리말
2. 이주노동자 유입과 이주노동자 제도정비
3.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지역의 특성
4.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양태
5. 마무리

【국문초록】

한국농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도시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다른 적응 양상을 띤다. 농촌은 도시에서 찾을 수 없는 전근대성이 남아 있고, 제조업과 다른 고용조건을 맺는다. 이런 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농촌여건에서 경험하는 적응양태와 어려움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북 소속의 면지역 3곳을 대상으로

* 이 논문은 2019년 영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외국인 이주노동자 관련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3개 면지역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면담을 통해 그들의 고용에 얽힌 실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농촌은 초고령화와 여성화의 구조적 문제에 당면하여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한 주산지 농업에서 이주노동자의 일손이 불가피했다. 주산지 농업은 가격불안이 상존하였는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은 이주노동자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농촌생활 적응은 어려운 과제였다. 출신국가가 다를 경우보다 같은 국가출신이, 동일국가의 타 지역출신보다 같은 지역출신 노동자들이 일 과정에서 분쟁과 마찰이 적었다. 그들은 일 관련의 습관과 문화차이에서 뿐만 아니라 음식과 요리 등의 일상생활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느꼈다. 그들은 작은 감정상의 다툼과 분쟁이 발생해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그것이 질병발생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병원이용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촌 현실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선호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베트남 이주자들은 위계서열과 유대성을 바탕으로 힘든 농사일을 잘 해냈고, 또 협력관계를 토대로 공동작업에도 익숙했다. 유교문화를 공유한 그들은 한국농촌 문화와의 친화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주제어: 외국인 이주노동자, 농촌사회, 사회적응, 베트남 이주노동자

1. 머리말

한국농촌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 농촌은 산업화와 도시화 진전을 위한 노동력 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일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은 도시중심으로 진행된 공업화를 위한 인력으로 빠져나갔으며, 대신 농촌은 노년층 중심으로 인력시장이 재편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관습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노년층 위주의 농촌사회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절대부족 현상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동시에 급변하는 민주적·합리적 관계문화의 정립에도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

근대 국민국가 시대에서 통합이 국가구성원을 대상으로 애국정체성을 고취시키며 이를 국가차원의 정체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글로벌 시대에서 통합은 이민자들을 주류사회에 기계적으로 동화 내지 편입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런 이민자들을 주류사회의 구성원과 대등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적으로 독립성과 다양성을 수용·인정할 수 있는 데 둔다.[1] 특히 통합은 관념적, 사변적 차원의 통합당위성을 넘어 이민자들이 생활하는 지역단위의 실천적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소이살(Soysal, 1994)이 제기한 '탈국가적 시민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는 국적에 기반한 배타적 경계에 의해 규정되었던 전통적 시민권을 넘어 인간지위에 기반한 보편적 시민권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2] 이런 점에 유의할 때 한국농촌 지역에 들어와 생활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적응양태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 통합성의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3]

---

1) Rubin, G., "Explaining Increases in Xenophobia in Post-Communist", *The 2009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Toronto, 2009; 김서영, 「지역사회 차원에서 본 이주동자와의 통합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9(3), 2017: 269.

2) 이춘호, 「한국 이주노동자의 위치인식에 따른 정체성 변화」, 『인문사회 21』 8(3), 2017: 1096.

3) 구미 각국은 경제가 성장하고 노동력이 필요할 때 이민자를 초대받은 손님으로 취급했지만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불만이 커지면서 그들을 잠재적

농촌사회에서 당면한 노동력의 절대부족 현상은 외국인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을 낳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급격한 유입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한국 농촌인구는 전 인구의 6% (265만 명) 정도이며, 그 가운데서도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농촌인구의 과소화와 더불어 농업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업분야 이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농업고용 노동력에서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약 37%에 이른다.[4)]

한국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도시지역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와는 또다른 여건에서 새로운 적응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농촌은 전근대성이 알게 모르게 내재된 상황이며, 그런 점에서 출신국의 문화여건과 상당히 다른 측면을 띤다. 다시 말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농촌의 노동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글로벌 상황에 잘 적용될 수 없을 정도의 이질성을 띠며 문화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 유의할 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농촌여건에 어떤 적응을 보이는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농촌에 유입되게 된 사회문화적 요인을 탐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적응실태를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입장에서 밝힐 것이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한국농촌의 현실여건을 검토한다.

범죄자,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 주류문화 질서의 파괴자 등으로 취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Mosselson, A.,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citizens anymore: Violent xenophobia citizenship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in post-apartheid south africa",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36(3), 2010; 김서영, 앞의 논문, 2017: 269.

4) 김정섭·오내원·허주녕, 「농업고용 노동력 수급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정숙정, 「계절적 미등록이주노동자 유입현황과 사회적 묵인: 감곶감 주산지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29(1), 2019: 70.

다음으로, 농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적응실태와 적응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선호현상의 사회적 배경을 파악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한국농촌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며, 어떤 도전에 당면하는지를 탐색한다.

2. 이주노동자 유입과 이주노동자 제도 정비

1) 이주노동자 유입배경과 현황

1960대 이후 한국농촌은 공업화에 따른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특히 수출상품의 단가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실시한 저임금정책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은 농어민의 희생이 불가피했다. 다시 말해, 도시 노동자의 저임금 상황을 저곡가 정책으로 보충하고자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력 창고구실을 했던 농촌사회는 도시화를 위한 배후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젊은 고학력층일수도록 도시로 이주하였고, 아울러 젊은 층의 상당부분도 공업화에 따른 기능직 인력으로서 도시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여건에서 한국농촌의 재편이 불가피하였다. 농업에서 노동력이 노인층으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 부족현상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쌀농사 중심에서 시설농업, 공장식 농업, 축산업 등으로 농업이 다변화되었고, 동시에 농업영역의 기계화가 뒤따랐다. 이런 재편과정에서도 농촌은 노동력 부족과 저임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의한 노동력 문제의 극복을 시도하게 되었다.

한국농촌의 특성은 농가수익을 높이려는 전략으로써 특정작물을 재배하여 경작하는 주산지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작물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 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농촌특성은 외국인 이

주노동자의 수요와 맞물리게 되었다. 주산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정작물의 생산량이 집중되고, 통합된 체제를 따르며 생산함으로써 생산력을 높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농산물의 시장수요에 대응하려 하였다. 주산지 농업은 기후, 토양 등 자연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생산 또는 유통단위가 개별중심에서 집단으로 조직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주산지 농업을 통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또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다시 말해, 농산물에서 주산지 형성은 단일작목의 기술력을 높이고 유통단계를 체계화하여 시장대응력을 키우려 하였다. 이런 여건에서 공동생산, 협업경영에 바탕한 생산공동체로서의 농촌의 재구성이 불가피하였다.

주산지 농업은 특정지역에 특정의 단일작물을 재배·생산하는 데 집중하였고, 일정시기에 맞춘 생육기 동안에 특정작물을 재배하였으며, 또 그에 따른 집중적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5] 이런 일시적 단기노동력의 수요증가 상황에서 개별농가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으로 노동력 문제에 대응하려 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농촌 상황에서 고용인은 피고용인에 대해 전일적 내지 전인적 통제 경향이 강하였다. 이런 농촌여건에서 법적 계약에 의한 공식적, 계약적 관계맺음이 쉽지 않았다. 계약당사자간의 사적 관계맺음으로써 상식과 사리에 맞는 고용형태라기보다 마을단위에서 내려오던 관행과 관습을 따랐다. 다시 말해, 사적 관계맺음에 의해 임금, 휴식시간, 작업량 등의 노동공간과 과정을 통제하려 하였고, 동시에 숙소, 식사, 업무시간 이외의 생활공간과 과정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간섭하려 했다. 이른바 법적 장치에 의한 제도적 접근이라기보다는 개별적 가치와 기준에 의한 비제도적 관행이 쉽게 통용될 수 있었다. 문화차이가 뚜렷한 이주노동자들

5) 정숙정, 앞의 논문, 2019: 75-76.

에게 이런 사적통제 방식은 자칫 인권침해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6)]

이주노동자들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생활조건, 의사소통 장애에서 비롯되는 언어폭력, 부당한 임금조건 체결, 그리고 신체질병 치료 등에서 불이익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부당한 현상을 경험하였다.[7)] 첫째, 물건사용에서 흔히 볼 있는 빌려쓰기, 돌려쓰기와 같은 형태들이 농촌노동 현장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노동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웃이나 친척에 대여하여 일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노동자의 신분증을 압류함으로써 고용자는 그들의 삶을 통제하려 했다. 이주자들에게 신분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주체적 존재로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은 돈벌이에 급급하여 거주환경과 먹거리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었다. 다섯째, 이주노동자들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며, 또 일을 바라보는 관념에서도 차이가 심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행 등을 경험하였다.

그동안 외국인 이주노동자 관련 논의는 결혼이주여성과 비교할 때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주노

---

6) 현재까지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유입되어 어떤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는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부족했다. 농업분야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병률・전익수・윤종렬・민자혜,「농업분야 공용현황 분석 및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최서리・이창원,「농축산업 외국인력 활용실태와 정책과제」,『농촌사회』 24(1), 2014; 강경화・황대용,「외국인 농업연수생의 근로조건과 직무만족도」,『농촌지도와 개발』 13(1), 2006; 박민선,「농업부문 외국인 고용실태와 개선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양순미,「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애로와 직무 환경만족도의 관계분석」,『농촌경제』 39(4), 2016; 엄진영・우병준・김윤진,「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등이다.

7) 김희자・김병렬, 앞의 논문, 2017: 228-236.

동자의 규모가 이주여성에 비해 훨씬 컸음에도 이주노동자 관련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에 영속적으로 살 것을 전제한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았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인의 혈통을 이어주고 한국사회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을 전제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8)]

2. 외국인 이주노동자 관련 입법과정

외국인 노동자유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률의 정비가 불가피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법률(200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이 제정되었고, 이런 법률에 근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의거한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의 5대 정책목표를 세웠다. 일련의 입법활동을 통해 결혼이주자에 편중되었던 다문화지원을 이주노동자 쪽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9)]

미등록 불법고용 형태로 시작되었던 이주노동은 1993년 11월 제

8) 외국인 이주노동자 관련 연구에서도 주로 제조업 종사자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런 이유에서 농어촌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상당수가 제조업 영역의 작업장에 종사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의 정책도 제조업 중심의 이주노동자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농축산업계 종사 이주노동자 관련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9) 김희자 · 김병렬, 앞의 논문, 2017: 222.

조업 중심의 '산업연수제도'로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이주노동정책이었다. 이에 이주노동자는 노동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 혹은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들어왔으며 그들은 저임금의 과잉노동에 노출되었다. 농축산 분야의 요구에 부응하여 1995년 11월 농축산업종사 이주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2002년 7월 농림부는 외국인 농업연수생의 도입을 결정하였고, 2003년 1월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동년 7월 농업연수생이 입국할 수 있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타업종과 동일하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1년 연수, 2년 취업의 연수취업제와 고용허가제가 적용되었고,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한국에서 외국인 구직자의 선발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C) 성적인데, 이 성적이 높으면 주로 제조업, 건설업 등에 지원하며 성적이 낮으면 농축산업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농축산 영역은 노동조건이 열악하며 임금도 낮아서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농축산업계의 이주노동자 수는 28,593명이었고, 그중에서 남성이 19,082명, 여성이 9,511명이다.[10]

베트남의 경우, 한국정부와의 협약에 의해 3개월 단기체류 비자를 발급한다. 이 제도에 의해 베트남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농촌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 비자는 3개월 효력을 갖는데 최장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10) 김희자·김병렬, 위의 논문, 2017: 226. 참고로 2019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은 252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4.9%를 차지한다. 조선족 포함의 중국 국적이 110만(44%), 베트남 국적 22만(9%), 태국 국적 21만(8%), 미국 국적 16만(6%) 등의 순이다. 이들 중에서 취업관련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56만 7천여 명이며, 단순기능 인력이 91.8%이다. 불법체류자도 2018년 25만 명에서 2019년 39만 명으로 약 6.6% 증가하였다(한국경제신문, 2020. 2.17).

베트남 출신 단기 이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인력부족 현상을 겪는 농촌여건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인력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본국의 저임금과 절대빈곤 상황을 일거에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바라본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여 호치민 영사관에서는 3개월 체류의 한국 방문 단기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 비자를 한번 발급받으면 90일 내에서 한국거주가 가능하며 최장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호치민 총영사관 담당자에 따르면, 하루 5,000여명에서 12,000명이 한국행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매일 긴 줄을 선다고 했다. 현지영사에 의하면, 베트남인에게 한국행 비자를 받는 것은 큰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곧 인생역전의 기회로 본다고 했다.[11]

현재까지 3개월 비자발급에 따른 불법사항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제도는 한국농촌의 입장에서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기간에 발생하는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또 베트남 입장에서도 일거리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소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12]

---

11) 2019년 4월과 5월 각각 한 차례씩 호치민 총영사관을 방문하였으며, 이때 이○○영사로부터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맺었던 비자관련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양국의 필요에 의해 맺었던 비자제도로 양국 당사자들에게 상호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12) 비행기 티켓 비용은 부산 출발 호치민 도착의 경우 왕복 40여만 원, 인천 출발 호치민 도착의 경우 25만 원이라고 하였다. 오전 호치민에 들어가 오후 다시 한국으로 나오는 일정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이 발생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한-베 간의 단기비자 제도는 두 나라의 상호이해 충족에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한국은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베트남은 일자리 공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상호 이익을 가져온다고 했다.

3.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지역의 특성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경북 영천시 신녕면과 화산면, 경북 청도군 매전면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양태와 적응실태를 그들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밝히려 하였다. 이주노동자를 공급하는 인력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농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주노동자 관련 상황을 파악하려 하였고,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당면하는 현안을 살피려 하였다.[13]

영천군 신녕면 방문은 2019년 8월 23일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의 3시간여에 걸쳐 이루어졌다. 베트남 현지지역을 상대로 이주노동자를 공급받아 농가에 파견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는 윤○○(52세)을 만나 그동안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한국거주 13년)의 도움으로 현지 베트남인 80여 명을 받아들여 농가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주자 모집의 중간역할을 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의 인터뷰는 윤○○의 양해하에 40여 분간 진행되었다. 그녀는 베트남 현지의 인력조달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었고, 한국농촌에서 그들의 적응양태를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소상하게 들려주었다. 인력공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윤○○는 한국농촌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을 가감 없이

13) 이 연구는 사례연구로 경북지역 중에서도 영천시 신녕면과 화산면, 청도군 매전면 세 곳에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신녕과 화산지역은 양파와 마늘의 주산지로 인력의 계절적 수요가 많으며, 따라서 단기비자를 활용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입이 활발한 곳이다. 청도 매전면은 이주노동자 유입이 활발하지 않지만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서 특색을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들려주었고, 덧붙여 왜 이주노동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주노동력 관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장 차원에서 알려주었다.

영천시 화산면 방문은 2019년 9월 18일 17시에서부터 19시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화산면 영신농장을 경영하는 이○○대표(마을이장 역임)의 주선으로 마을에서 양파 농사와 양파 중간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마을 주민 김○○(부부간)을 소개받았고, 이들과 공동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김○○부부는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4명을 고용하여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양파가공 공장 옆에 별채 건물을 지었고, 이 별채건물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를 어떤 경로로 소개받아 고용하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의 현장작업 환경이 어떠한지를 소상히 들려주었다.

청도군 매전면 방문은 2019년 10월 24일 면사무소의 산업담당 계장인 허○○의 안내로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매전면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와의 면담은 면사무소 휴게실에서 일대일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는 청도군에서 28년 공직생활을 하였던 관계로 매전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매전면 현황 관련 설명에 이어, 남영 2리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농가 방문을 주선하였다. 농가에서는 농장주인 조○○를 만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게 된 배경과 현재 농촌실상을 들을 수 있었다. 태국출신 이주노동자(B씨)와의 일년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는 물론이며 그의 적응상황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2) 연구대상 지역 특성

영천시 신녕면은 마늘과 양파를 주작물로 재배한다. 신녕면 농가수의 절반 이상인 690농가에서 696ha 마늘을 재배한다. 신녕면은 전체 2,255가구 중에서 비농가인 839가구를 제외한 1,416가구

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총인구는 4,047명이고 그중 남자 1,980명, 여자 2,067명이다. 대체로 고령층으로 여성노인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동시에 여성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편이다. 이런 상태에서 농촌사회의 유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2018년 732농가는 680ha 면적의 마늘을 재배하여 11,000톤을 생산하였고, 41농가는 28ha 면적의 양파를 재배하여 2,100톤을 생산하였다. 2019년 690농가는 696ha 면적의 마늘을 재배하여 15,000톤을 생산하였으며 52농가는 28ha 면적의 양파를 재배하여 2,100톤을 생산하였다.[14)]

마늘과 양파 주산지인 신녕면은 9월과 10월 동안 파종 때와 5월과 6월 중순 사이 수확기 때 일손을 집중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런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녕면 거주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 노동자들을 불러들였다. 이 이주여성의 고향인 호치민 부근을 중심으로 150여 명에서 80여 명의 노동자들이 들어왔다. 처음 몇 개 나라 국적 이주노동자를 모았으며 베트남 출신 중에서도 북부와 남부지역을 불문하고 받아들였다. 이런 다국적의 출신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조건에서 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잦았다. 이런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호치민 부근의 남부지역 노동자를 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화산면 인접의 신녕면은 1600여 가구에 3,3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주산물인 마늘, 양파에 더해 봉숭아, 자두, 포도 등의 과일과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다. 평야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주민들은 7, 8천여 평에서 1, 2만여 평의 대농에서부터 평균 3천여 평의 중농까지 벼농사를 짓고 있었다. 70대 노령자까지도 농사일을 해야 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며, 따라서 농사에서의 효율성

14) https://www.yc.go.kr/(신녕면)

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마늘농사의 경우, 2018년 과잉 생산되었는데, 그것은 농가수입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수입구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비롯한 여타 일상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15]

화산면의 농촌여건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였다. 몇몇 축산가구(소 사육)를 제외하면 농가소득에서 수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았다. 마늘, 양파 등이 과잉생산되면서 적자를 겨우 면할 정도라 하였으며, 또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농산물 제값 받기가 쉽지 않았다. 덩달아 꾸준히 오르던 농지가격까지 하향 추세여서 농지매매도 실종 상태에 있다. 지역을 찾는 젊은 인력이 실종된 상황에서 농촌의 미래는 밝은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청도군 매전면은 1,900여 세대의 3,900여 명이 거주하는 산지에 끼인 농촌지역이다. 인근 대도시인 대구와 경산에서 가까운 곳(승용차로 30분에서 1시간여 거리)에 있어 귀촌귀농인들이 몰려들었고, 감 주산주로 알려져 있다. 고령화와 여성화의 영향으로 연간 출생자는 1-2명 정도이며 사망자는 6, 70여 명에 이른다. 몇몇 농가에서 감 건조시설을 갖추어 감 말랭이와 곶감을 만들어 소득을 높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는 고령화에 직면하여 전통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 대도시에 인접한 위치여서 현지인은 줄어드는데 귀농귀촌자들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 지점에서 한국농촌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볼 수 있다. 귀농귀촌의 영향으로 농사지을 실질인력은 줄어드는데 농지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농지가격이 상승상황에서는 외지출신의 젊은 인력 유치가 쉽지 않으며, 그것은 '찾아오는'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

15) https://www.yc.go.kr/(화산면)

4.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양태

1) 한국농촌의 현황과 이주노동자 유입배경

경북 영천지역의 경우 2014년경부터 이주노동자 유입이 본격 시작되었다. 신녕면과 화산면은 마늘과 양파 주산지로 이들 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농산물의 경우 파종시기와 수확시기 때 일손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수성을 띤다. 마늘농사는 9월과 10월 파종하여 다음 해 5월과 6월 중순 수확한다. 문제는 일손이 집중되는 시기에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안는다. 고령화와 여성화에 당면하여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없다. 이런 농촌상황에서 값싼 임금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고, 그들을 통해 부족한 일손을 메꾸려 하였다.

고령화에 따른 농가당 경지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몇몇 농가들은 이주노동력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신녕면에서 인력회사를 운영하는 윤○○는 이주노동자 유입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은 7만평의 농장에서 대규모로 마늘농사를 시작했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이게 되었다. 마침 마을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뜻을 같이하였고 그녀의 도움으로 호치민 주변의 농촌마을에서 인력을 초빙할 수 있었다. 이렇게 초빙한 것을 계기로 일손부족 현상을 겪는 다른 농가의 요청이 쇄도했고, 그것이 인력공급회사를 차리는 계기였다."[16]

신녕면의 경우 1만평(50마지기) 이상의 대농이 10% 정도를 차

16) 이주노동자를 통해 절대 부족 상태에 있는 농촌인력을 메꾸려는 전문적 인력회사들이 생겨났다. 이런 인력회사는 이주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여 일손이 부족한 여러 농가에 인력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지하며, 평균 3,000평(15마지기) 정도의 농토를 경작한다. 농업이 갖는 특성상 농사 성패는 가격안정화와 직결된다. 풍년이 들어 농사가 잘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흉년이면 가격이 오르는 불안정한 가격구조를 하는데, 이에 덧붙여 작물수급의 불안정성이 상존한다. 어느 해 특정지역에서 특정작물의 가격이 좋으면 그것이 곧바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그 지역에서 그 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한다.

윤○○은 한때 7만 평까지 마늘농사를 지었는데 1년 사이에 10억대의 손실을 보았다고 했다. 농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시장수급에 따른 가격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가격이 괜찮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지금까지 재배하지 않았던 지역(창녕)에서 마늘과 양파농사를 급격히 늘리며 그런 경우 가격폭락이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거시적 농업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고, 특히 전국차원에서 농산물 수급을 둘러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자체 단위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주산지별 농업특성을 살리면서 비주산지의 농업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주산지를 무시한 신규산지로의 파종확대는 마늘과 양파 가격파동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했다.

가격폭락이 일어나면 대농의 경우 재기불능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한해 농사에서 실패하면 원가의 30% 정도를 겨우 건질 수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실제 그런 일이 지역에서 종종 발생했다고 알려주었다.

한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농촌에 유입되는 배경과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 한국농촌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마늘과 양파를 재배할 때이거나 돼지, 소 등을 키우는 축산업의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가운영이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노동인력을 구하기 힘든 여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한국

생활에의 적응이 만만찮지만 그들의 국내여건과 비교할 때 임금조건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한국행을 감행한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된 노동조건과 저임금으로 일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한국농촌의 여건에서 젊은 인력 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풍부한 인력풀이 있는 도시로부터의 인력충당도 여의치 않다.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일할 경우,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조금만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도시로 돌아간다. 현재 한국농촌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농업유지의 중요한 관건이다.

이주노동자는 노동의 댓가로 일당 6만원에서 8만원 정도를 받았다. 남자는 8만원을 기본급으로 일의 강도가 세고 힘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비슷한 임금을 받았다. 이런 임금수준은 베트남을 비롯한 개도국 수준에서 고임금으로 분류되는데, 대체로 6개월만큼의 임금을 1개월에 받을 수 있을 정도라 했다. 이런 임금수준의 차이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을 찾는 핵심 유인책이라 할 수 있다.

영천지역 이주노동자 모집은 다음 절차로 진행되었다. 처음 인력회사를 만들 때 베트남에 한정하지 않았고 중국, 태국, 스리랑카 등에서 인력을 들여왔다. 베트남인의 경우에도 지역구분 없이 받아들였다. 현재는 주로 베트남 남부지역 출신을 받아들인다. 베트남인 모집의 중개역할을 하는 결혼이주여성(반장)이 호치민 외곽지역 출신으로 그녀를 통해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베트남 현지지역의 몇 곳에 연락책을 두어 한국농촌에서 일할 인력을 모집하였다. 이렇게 모집한 이주자를 대상으로 단기비자를 받도록 알선하였고, 그들이 노동현장에서 잘 적응하도록 멘토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다.[17]

---

17) 베트남 외국인 이주노동자 모집은 결혼이주여성이 담당하였다. 그녀는

2) 적응양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은 대체로 40대 전후부터 50대 중후반까지의 연령대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런 점에서 주로 젊은 층 중심인 제조업 종사자와 비교해 연령대가 높았다. 연령대가 높은 관계로 부부간에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부간에 들어온 경우는 혼자 들어온 노동자에 비해 힘든 농촌생활에 더 잘 적응하였다. 그들의 숙소는 몇 가지 형태로 운영되었다. 각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소규모 형태로 기거하였으며, 또 다른 경우는 집단숙소에서 수십 명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남자/여자로 나누어 그룹 형태로 주거와 식사를 해결하였다. 그들은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공동숙식이어서 위생시설이 열악하였고, 심지어 시멘트 바닥에 장판을 깔고 점심을 먹기도 했다. 부부가 함께 들어온 경우는 주인집 빈방을 이용해 숙식을 해결하였다.

40, 50대 이주노동자 부부가 한국에 함께 들어올 때 자녀를 현지마을의 친척이나 이웃에게 맡기고 온다. 어린 자녀를 맡길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아이들만 현지에 두고 온다. 베트남 농촌사회에서는 8세가 되면 아이 혼자 독립할 수 있다고 보고 고향 집에서 살도록 한다. 심지어 5세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고향에 두고 온 부부도 있었다. 베트남 오지마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며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데, 이런 경우 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주노동자 부모는 늘 불안해한다고 했다. 이렇게 들어온 부부들은 일

27세에 한국으로 시집와서 한국국적을 취득했고, 13년을 체류하면서 1남 1녀를 두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할 수 있으며, 또 한국문화와 베트남 문화를 잘 알며 고향마을을 거점으로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모집하였다. 그녀는 80여명에 이르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일상적 삶까지 챙기고 있었다. 점심메뉴부터 숙소배정, 건강문제에 이르기까지 조언하였다.

때문에 정신없다가 비가 내리거나 일이 없을 때 자녀 생각으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다고 했다.

화산면 소재 농가에 베트남 노동자 4명이 집단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2명은 부부였고, 나머지 2명은 독신 남자였다. 주인집과 마주한 별채 건물에서 부엌과 방을 공동 사용하며 생활하였다. 주인은 2000여 평 농토에서 마늘과 양파농사를 지었고, 양파 중간 가공업을 위해 이들을 고용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며, 월평균 임금으로 남자 180만에서 200여만 원, 여자 150여만 원을 받았다. 그들은 일과 관련된 소통에서 큰 문제없이 농촌 현실에 잘 적응하였다. 부부관계로 온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오랜 기간 같이 거주할 경향이 있고, 독신으로 온 이주자의 경우 이직이 잦고 생활적응에서 힘들어하였다.

농사일은 그 속성상 반복활동이어서 적응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먼저 온 선배 노동자가 일의 의미와 방식을 후배에게 전달해주며, 또 이주자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상부상조해가며 농촌 현실에 적응해간다고 했다. 농촌거주 이주노동자는 도시거주자에 비해 비교적 연령이 높고 근검절약의 삶을 산다고 했다. 자유시간을 주어도 돈을 잘 쓰지 않으며 집을 중심으로 검소하게 생활해간다. 간혹 그들 중의 몇몇이 도시의 유흥문화에 빠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마을에서 가까운 곳을 배경으로 근검절약형의 삶을 살아간다.

돈벌이에 목적을 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돈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화산면 이장출신인 이○○에 의하면,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은 그들끼리 잘 연계된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농촌생활의 대부분을 공유한다. 그들은 임금조건, 거주여건, 생활환경, 일의 강도 등과 관련하여 서로간 정보를 주고받는다. 일 관련 조건이 조금만 불리하면 통역(결혼이주여성)을 통해 주인과 협상을 벌이며 그런 협상에서 불만이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도주를 감행한

다. 종종 이주노동자들의 야반도주가 집단으로 일어난다.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에서 조금만 좋은 곳이 있으면 지금까지 맺었던 주인과의 관계에 개의치 않고 몰래 타지역으로 도망을 간다. 이미 마을에서 몇 차례 그런 야반도주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렇게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어느 날 다시 찾아오기도 한다. 새로운 곳에서 생활하다가 뭔가에 뜻이 맞지 않으면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온다. 작년 추석 뒤, 8명 중 4명이 한꺼번에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쌓았던 신뢰관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18]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둘 때 한국농촌의 이주노동자 관련의 노동여건에서 신뢰, 약속, 네트워크 등에 토대한 사회자본의 정립을 잘 찾을 수 없다. 사회자본 형성이 갖추어질 때 구성원들은 신뢰에 기반한 안정적 노동규범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런 토대 위에서 안정적인 행위 양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현재 한국농촌은 미래를 전망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었다.

3) 적응의 어려움

이주노동자들의 한국농촌 생활에서 큰 성취를 거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부부가 함께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월 5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 이 부부는 모은 돈을 베트남에 투자하였고, 이를 토

18)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인은 현지의 노동문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노동자의 잦은 이직에 있다. 기술적 숙련도가 상당히 쌓인 시점인데도 인근 회사에서 좀 더 나은 임금조건을 제공하면 그 회사로 이직한다. 이런 경험을 한 뒤부터 현지의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용교,『베트남 사회문화 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2019: 45 참조할 것.

대로 지역에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공일화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이에 자극받은 이주노동자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코리안 드림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한국농촌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또 다른 이주노동자 사례를 살펴본다. "태국 청년 B씨(26세)는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조○○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조씨 부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남양리 일대의 농사와 축산(소 100여 마리)을 겸업하는 조씨 부부는 B씨를 고용하여 월 150-200여만 원(월급)을 지급하며 집의 일을 도맡아 시키고 있었다. B씨는 성실성을 인정받아 주인집 소유의 대추밭(200여평)을 위탁받아 경작하였고 여기서 나오는 소득을 자신의 몫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부모-아들의 정의적 관계를 맺으며 한 식구처럼 생활하였다. 호칭에서도 부모와 자식으로 부른다고 했다. 그는 내년 본국으로 돌아가 결혼한 뒤 부부가 다시 주인댁인 조씨 집으로 돌아올 것이며, 경제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더 머물 계획이라 했다."

한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한국농촌 생활과정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한국농가가 당면하는 경제적 불안정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농촌에서 일은 계절적 특성을 갖는데, 다시 말해 농한기 때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인력회사의 경우 이런 힘든 시기를 감안하여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체계화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인력회사는 보험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금전적 측면에서 조금의 타격을 입게 되면 재기불능상태에 이를 수 있다.

농산물의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을 때 이주노동자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농산물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농가소득이 여의치 않을 때 이주노동자의 삶도 안정적 보장이 어려웠다. 이주자들의 삶은 그들을 고용한 농가의 경제 상황과 밀접히 결부되었

다. 농사가 잘되어 농산물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들은 임금과 생활조건에서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농가의 수입구조가 어떤 예기치 않은 요인에 의해 갑자기 나빠질 때 이주노동자의 삶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다.

둘째, 일상생활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그들은 한방에 남자 십여 명, 여자 십여 명이 집단거주 형태로 기거하였고, 주거공간의 위생상태까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보였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의 곳곳에 거미줄이 걸려 있었고, 취침공간도 지저분해 보였다. 이런 열악한 정리되지 않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그들은 작은 분쟁에서도 화를 잘 내며, 기분을 폭발시켜 큰 싸움을 벌인다고 했다. 주거를 둘러싼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은 사소한 일상적인 것에도 민감해하며 다툼을 벌인다고 했고, 심지어 그것이 큰 사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갈등국면에 노출된다고 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실제 여건에 대해 살펴본다. 그들은 가건물인 컨테이너박스에서 숙식하였고, 간단한 샤워장을 갖춘 빈약한 시설을 이용하였다. 문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잘 읽어낼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실거주자 각자의 청결과 위생을 위한 자생적 의지가 있다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가 잠시 왔다가 곧 떠날 것이라는 떠돌이 식의 생각을 한 탓인지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드려는 주체적 의지를 찾을 수 없었다.

셋째, 그들은 와병하여 병원을 이용할 때 적응상의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었다.[19] 열악한 환경에서 서로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

19) 선행연구에서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의료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병원이용 때 언어장벽, 외출허가의 어려움, 의료서비스 이용의 복잡함 등에서 쉽지 않음을 경험했다고 했다. 김성호, 「한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며 생활했고, 그것은 조금의 충격에도 와병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였다. 와병하여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그들은 한국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적응상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단기비자 형태로 들어온 관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질병이 발생하여 병원을 찾으면 만만찮은 진료비가 나온다. 응급실을 찾을 때 100여만 원 정도의 비싼 병원비가 청구된다. 엑스레이, CT 등의 간단한 검사만 해도 병원비가 만만찮다고 했다. 비보험으로 처리되는 병원비는 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 그들이 와병하여 병원을 찾는 횟수는 한국농민의 사례보다 더 잦다고 하였다.

현지관찰자에 의하면,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여름나기에 몹시 힘들어한다. 베트남인의 경우 다른 계절보다 여름 동안 병원방문이 잦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에 잘 단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생활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또 습도가 상당히 높은 기후여건에서 공동거주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한방에 10여 명이 집단생활하는 과정에서는 작은 차이에도 쉽게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그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견디기 힘든 심리적 고통이 수반되며 심지어 와병에 이른다는 것이다. 간혹 그들 중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나머지 심장마비를 경험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들은 감정적, 정서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농촌 거주 이주자들은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가족에서 떨어져 있다는 고립감에서 고통을 겪는다.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경우 유교 영향으로 끈끈한 가족주의적 정서가 강한데, 가족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인식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콘텐츠 연구』18, 2015: 262.

서 마음의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부부가 함께 와있는 경우는 어린 자녀를 향한 걱정에서 늘 노심초사하며 생활한다. 비가 오는 날이거나 일거리가 없을 때는 눈물을 보이며 애절한 마음을 삭인다고 했다. 베트남 농촌에서 만 5세를 넘긴 자녀는 독립할 수 있다고 보고 이주노동을 결심하는 데 그런 부모들은 자녀 생각으로 편치 않은 나날을 보낸다는 것이다.

4) 베트남 이주노동자 선호이유

현지주민들에 의하면,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한국농촌의 현실에 더 잘 적응한다고 했고, 또 실제로 베트남 출신 노동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인력회사 대표인 윤 사장은 그들의 적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사업을 시작할 때 중국,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등 몇몇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고, 그들을 자신의 농장을 비롯한 각 개별농장에 보내 일하도록 했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상당히 힘들고 팍팍한 일인데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꾸준하며 눈속임을 하지 않고 일을 잘 수행했다. 그들은 일의 특성을 설명 듣고 현지상황을 잘 파악하였으며, 일 수행에서도 빈틈없이 잘해냈다. 요즘은 한국인들도 농사일을 시키면 일을 하는 중에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중도에 그만두고 떠난다. 이에 비해 베트남인들은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음식과 주거환경 등에서 차이가 있어도 별 불평 없이 일을 잘 하며 그들끼리의 연대성도 상당하다고 했다."

화산면의 양파의 일차가공업을 하는 김○○는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우즈벡 등의 중앙아시아 출신에 비해 체구가 작아 힘든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농촌상황을 잘 파악하며 그들끼리의 협동심이 강하고 주인 지시를 고

분고분하게 따르며 과업을 잘 해낸다. 일을 시키면 크게 이유를 달지 않고 수용적 자세로 받아들이며, 무엇보다도 그들끼리의 친밀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협동심을 발휘한다. 체구가 적어 힘든 일에 일정의 한계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농사현장에서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한국농촌 문화에 잘 적응하며 농촌문화에 친화성이 큰 것으로 보였다. 같은 유교문화권으로 농촌 출신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유사한 문화를 공유한 한국농촌 현실을 잘 이해하여 받아들였다. 위계서열과 정(情)에 근거해 살아가는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국가출신에 비해 한국농촌에 쉽게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공동작업에도 익숙하며 주인과도 원활한 관계를 맺었다.[20]

베트남 출신 노동자의 한국농촌 적응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극적 개입이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으로 시집을 온 뒤 농촌여건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농촌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런 이주여성들은 모국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적응 관련의 각종 정보제공은 물론 삶의 편의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주여성으로부터의 이런 도움을 받을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농촌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현재 신녕과 화산면 지역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호치민시 외곽의 남부지역 출신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특정지역 출신의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해 영

20) 베트남 문화는 한국과 비슷한 형태로서 '효'에 근거한 가족주의와 '인'에 토대한 유교 원리와 친화성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 노동윤리는 근면 성실하고 타인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협동적 노동관과 밀접히 관련된다. 덧붙여 베트남 출신 노동자의 일 문화는 한국 농촌현실과 유사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선호현상은 경북지역을 넘어 한국 농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정용교(2019), 앞의 책을 참고할 것.

신농장 대표인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전에는 하노이 부근의 베트남 북부지역에서도 일부가 들어왔다. 이처럼 지역이 섞이면서 체류기간 동안 갈등과 분쟁이 잦았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또 농사일에서 협력이 중요한데 지역이 다를 경우 협력관계를 잘 맺을 수 없었다. 농사일은 미세한 습관과 문화의 차이에서도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소한 의견 차이로 인해 서로 간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같은 국가 출신인 경우에도 지역에 따른 문화와 습성의 차이에 따라 적응상에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노동자끼리의 몇 차례 갈등국면을 경험한 뒤부터 생활방식과 적응양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같은 지역 출신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Ⅴ. 마무리

이상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농촌에 유입되는 경제사회적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그들의 농촌생활 적응양상을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농촌이 안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았다. 초고령화와 여성화가 심화된 농촌여건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제3세계 출신 이주노동력 도입이 불가피하였다. 국내출신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어렵게 되면서 값싼 이주노동자를 집단적으로 받아들여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런 여건에서 인력공급 회사를 만들어 이주노동자를 조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노동력 확보라는 단기적 당면과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었지만 현장 농촌여건에서 녹녹하지 않은 측면이 드러났다. 농촌주민들은 경작한 농산물의 제값을 보장받지 못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농산물의 가격안정화에 필수적인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농산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지자체 차원의 농업정책을 넘어 주산지 농업특성을 살리면서 비주산지 농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국차원의 균형 잡힌 농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한국농촌 유입배경과 적응양태는 다음과 같았다. 한국농촌에서 농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 임금이 높게 매겨져 내국인 인력을 구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한국농촌 이주를 저임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일당 6~8만 원의 임금(이주자 입장)은 그들에게 코리안 드림으로 보였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 단기비자를 통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합법적 기회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한국농촌 생활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주노동자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 후반까지 넓게 분포되었는데, 그중 40대에서 50대의 연령대에서 농촌생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의 경우가 독신 상태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하였다. 주변에 모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있을 때 적응에 유리하다고 했다. 그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았다. 이주노동자의 출신국가가 다를 경우는 같은 국가출신보다 더 많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또 동일국가의 경우에도 출신지역이 다를 때 다툼이 더 잦았다.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몸이 불편하여 병원을 방문할 때였다. 아픈 것 자체도 시런인데 미보험 상태여서 비싼 치료비를 지불할 때 정신적 및 물질적 어려움이 컸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촌의 현장에서는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큰 다툼 없이 일을 꼼꼼히 잘 해냈으며, 또 그들은 한국농촌에 내재해 있는 고유문화를 공유하면서 근면성실하게 일하려는 노동관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그들은 위계서열과 정(情)에 근거해 살아가는 한국문화와의 적합성이 큰 것으로 보였다. 여타 국가출신에 비해 문화맥락

을 공유한다는 사실에서 베트남 이주자를 선호하는 배경을 찾을 수 있었다.

한국농촌은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행 농촌상황에서 고령화는 한층 진전될 것이며, 덩달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도 증가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증가 현상에 즈음하여 어떤 농촌사회의 질서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냐는 한국농촌이 당면한 중대한 시대적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경화・황대용, 「외국인 농업연수생의 근로조건과 직무만족도」, 『농촌지도와 개발』 13(1), 2006: 195–208.

김병률・전익수・윤종렬・민자혜, 「농업분야 공용현황 분석 및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김서영, 「지역사회 차원에서 본 이주동자와의 통합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9(3), 2017 267–287.

김성호, 「한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콘텐츠 연구』 18. 2015: 255–297.

김정섭・오내원・허주녕, 『농업고용 노동력 수급실태와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김정섭・오내원・허주녕, 「농업고용 노동력 수급실태와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김희자・이병렬. 「농촌사회의 전근대성과 농축산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적 인권침해」, 『다문화사회연구』 10(1), 2017: 221–253.

박민선, 「농업 부문 외국인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양순미,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애로와 직무 환경만족도의 관계분석」, 『농촌경제』 39(4), 2016:97–122.

엄진영・우병준・김윤진,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정숙정, 「계절적 미등록이주노동자 유입현황과 사회적 묵인: 감곶감 주산지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9(1), 2019: 69-106.
정용교, 『베트남 사회문화 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2019.
최서리 · 이창원, 「농축산업 외국인력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농촌사회』 24(1): 113-150.
이춘호, 「한국 이주노동자의 위치인식에 따른 정체성 변화」, 『인문사회』 21 8(3), 2017: 1093-1112.
Jones, R. B., "Intolerable intolerance: toxic xenophobia and pedagogy of resistance", *The High School Journal*, 95(2), 2011: 341-354.
Mosselson, A.,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citizens anymore: Violent xenophobia citizenship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in post-apartheid south africa",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36(3), 2010:895-911.
Rubin, G., "Explaining Increases in Xenophobia in Post-Communist", *The 2009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Toronto, 2009.
https://www.yc.go.kr/(신녕면, 화산면)
한국경제신문, 2020. 2.17.

(**투고일**: 2020. 1. 31 **심사완료일**: 2020. 3. 18 **게재확정일**: 2020. 3. 20)

정용교
소 속: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주 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전자우편: ykyochung@ynu.ac.kr

[Abstract]

Influx and Adaptation of Foreign Migrant Workers to Rural Society

- Focusing on some part of Gyeongbuk

Chung, Yong-kyo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n rural villages were forced to accept migrant workers in the face of the structural problems of super-aging and feminization, and were forced to hire migrant workers in the Main Producing Area Agriculture. There was constant price Instability in Main Producing Area, especially the price surge caused by overproduction. Second, migrant workers could not easily adapt to rural life. There were fewer conflicts and disputes when the country of origin was from the same country than in other country, and when workers from the same region worked than those from other regions of the same country. They showed difficulties in adapting to their work-related habits and cultural differences. They suffered great psychological stress in the event of small emotion struggles and conflicts, and such severe psychological stress led the condition to disease. The biggest difficulty for them was insurance coverage deprivation for hospital use. At last, there was a strong preference for Vietnamese migrant workers at Korean rural sites. Vietnamese immigrants performed hard farming based on hierarchy and ties. Vietnamese immigrants who shared Confucian culture could be seen as having great affinity with Korean rural culture.

Key words: Foreign migrant workers, rural society, social adaptation, Vietnamese migrant workers